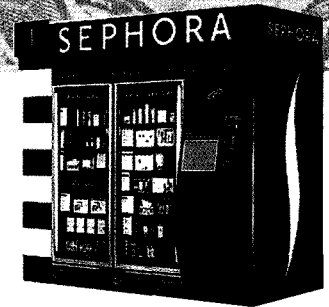


해외 이색 신상품

美 세포라, 미국시장서 화장품 자판기 시범운영
健康 델몬트, 신선편이 과일자동판매기
犬 애견인을 위한 자동판매기 헤이버디
舞 여성들을 위한 플랫폼 슈즈자판기
酒 일본 와인자동지급기 등장



세포라, 미국시장서 화장품 자판기 시범운영

온-라인 쇼핑 장점과 전통적 매장 친밀성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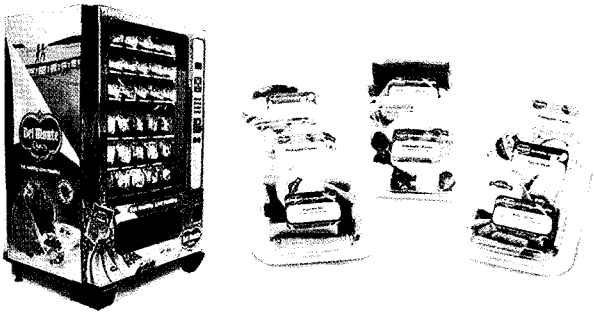
고급화장품을 자판기로 판다. 프랑스 LVMH 그룹 계열의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Sephora)가 미국 최대의 백화점업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JC페니(JCPenney)와 손잡고 화장품 자판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총 1,100여 곳에 달하는 JC페니 매장 중 20곳을 선택해 향수와 스킨케어 제품들을 판매하는 키오스크 매장 형태의 자판기를 설치한 것이다. 특히 이 화장품자판기는 온-라인 쇼핑의 장점과 전통적인 매장의 친밀성을 결합시킨 것 특징이다. JC페니는 지난 2006년 제휴계약을 맺고 자사의 매장공간 내부에 '세포라' 부띠끄점 150여 곳의 입점을 허용한 파트너 업체이다. 자판기 시범운영 장소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슝-인-슝 형태의 매장을 유치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구색의 화장품을 진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매장들 중에서 선택됐다.

이 화장품자판기는 가로·세로 각 7피트 사이즈로 설계되었다. 키오스크 매장 형태의 자판기는 '세포라'가 판매하고 있는 각종 메이크업, 스킨케어 및 향수 제품들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50개 정도의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오르'와 '베어 에센츄얼'(Bare Escentuals), '필로소피'(Philosophy) 등의 브랜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자판기에 부착된 터치스크린을 눌러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세포라측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될 경우 자판기 설치대수를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 화장품 자판기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해 있는 자판기업체 줌 시스템즈社(Zoom Systems)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델몬트, 신선편이 과일자동판매기



해외에서도 건강, 웰빙자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프레시 델몬트 프로듀스(Fresh Del Monte Produce Inc)는 자동판매기용 신선편이 과일스낵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사과 슬라이스, 베이비 당근, 샐러리, 토마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1~2.5 달러이다.

이 제품의 출시 동기에 대해 테니스 크리스토텔

몬트 마케팅 부사장은 “건강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기에 책임감을 갖고 120칼로리 이내의 신선편이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프레시 델몬트 프로듀스에 따르면 자동판매기용 신선편이 제품은 냉동보관을 기본으로 1주일 1회 교체된다. 바나나의 색상유지나 완만한 숙성을 위해 자체적인 기계를 개발했다. 평균 진열기간은 5일이고, 이번 과일자판기를 최근 시카고에서 개최된 전국 자동판매기계 컨벤션 행사에서 정식 선을 보였다. 이후 일리오이주와 사우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헬스클럽, 학교, 학원, 회사 등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실시했다.

애견인을 위한 자동판매기 헤이버디

강아지용 배설물 봉지 · 간식거리 판매

자판기가 사람을 위한 물품만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애완동물을 위한 물품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가 있다. 미국의 헤이 버디(Hey Buddy)에서 선보인 애견용품 자동판매기 ‘헤이버디’가 그 주인공이다.

이 제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폭넓은 애완동물 시장에 있다. 미국 애완동물 제조협회(APPMA)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63%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45%는 한 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 애견인들은 애완동물을 위해 평균적으로 연 1500달러를 지출한다.

‘헤이 버디’는 이러한 애견시장을 겨냥해 각종 애완동물용품을 취급하는 자동판매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로 공원, 동물병원 앞, 밀집 주거지역, 휴게소 등에 제품을 설치해 개를 위한 배설물 봉지, 짬, 간식거리, 공 등을 판매하고 있다.

헤이 버디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패키지 가격은 4195~8195달러이다. 이 패키지에는 헤이 버디의 특허사용권과 운영 매뉴얼 비용이 포함돼 있고 자동판매기 안에 들어갈 초기 재고물품과 헤이 버디의 로고가 박힌 셔츠의 비용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헤이 버디의 자랑할만한 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주는 별도 비용 없이 초기 자본만으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헤이 버디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여성들을 위한 플랫 슈즈자판기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이라면 밤새 춤을 추고 나서 발이 지칠 때,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핸드백 안에 접어서 넣어 두는 '비상용' 플랫 슈즈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영국의 두 신생 회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나이트 클럽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위한 이동식 플랫 슈즈 자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먼저 '롤라솔스(Rollasoles)'라는 업체는 5파운드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신발을 출시했는데 색상은 4가지 종류로 제공된다. 옵션은 하이 호 실버(은색), 골드 디저(금색), 백 투 블랙(검은색) 그리고 부홍색으로 주어진다.

이 상품을 두고 오세아나(Oceana)와 (Liquid) 나이트클럽에서 시험 삼아 판매해 본 결과 클래식해 보이는 발레 슈즈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이후 로라솔스는 더 많은 자판기를 내놓을 예정이며, 영국 이외의 지역에도 지사를 만들 예정이다. 또 다른 업체 '애프터힐스(Afterheels)'는 위에서 언급한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접을 수 있는 발레 플랫 슈즈를 역시 5파운드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 제품은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 갖는 기능 이외에도 '지속 가능성'까지 겸비했다고 한다. 또한 제품의 몸체는 자연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된 깔창은 온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이 두업체 모두 자사의 하이힐 제품을 이와 어울리는 가방과 함께 판매함으로써 여성 고객들의 미적 감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고 한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고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입한 신발을 보다 오래 간직하도록 하고자 했으며, 클럽을 이용하는 여성 고객들에게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다.

일본, 와인자동지급기 등장



▲ 마시고 싶은 양의 버튼을 눌러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는 모습

자판기의 천국 일본에서 와인을 자판기화한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는 업소가 등장했다. 정확히 말하면 와인 디스펜서(지급기)라는 명칭으로 등장한 자판기 개념의 와인 지급기는 도쿄 긴자의 한 와인Bar인 'GOSS'에 설치되어 있다. 먼저 희망하는 금액을 투입해 카드를 발급 받고, 그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마시고 싶은 와인을 선택해서 20ml, 40ml, 80ml중 양을 정해 버튼을 눌러 자신의 와인 잔에 와인을 받아 마시면 되는 기계이다. 긴자는 원래 일본에서도 와인 Bar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긴

자에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인 지급기 설치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손님들에게 새로운 재미도 선사할 수 있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참고로 와인 지급기를 처음 설치한 와인 Bar의 경우 와인 지급기 설치 이전 보다 2배 이상의 손님이 늘었다고 한다.